

예술 입는 목포 원도심...벌써부터 걷고 싶다

목포 원도심(목원동)에 예술 옷을 입히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걷고 싶은 목포'를 슬로건으로 명품 관광루트와 자드락 골목길을 조성하고, 주택 개량과 함께 목포를 상징하는 색(色)을 선정해 지붕을 도색하는 '목포의 재발견'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목원동 예술 입히기'로 이름붙여진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02억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으로, '걷고 싶은 목포'와 '목포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를 박종홍 목포시장이 직접 제안해 이뤄졌다.

'걷고 싶은 목포'는 관광루트와 자드락 골목길 조성 등 두 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원도심에 산재된 일제 강점기 근대화유산들을 비롯한 유달산·노적봉 등 자연자원, 항구축제, 인물 스토리텔링 등을 통합·연계시킨 독창적인 코스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관광루트는 '육단이 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목포 출신 극작가 차범석의 작품 '육단어'와 원도심

리공간으로, 거리와 관련된 인물들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중심부에 위치한 구름다리를 예술적 표현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구름다리가 무지개 색으로 꾸며지고 이때 방과 차범석 조형 벽화가 설치된다. 또 이매방 등 예능의 산실이었던 기생 권번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부활시키는 작업과 김대중 대통령의 신혼 집을 테마로 한 공원도 조성된다.

또 '자드락 골목길'은 주민의 생활 동선인 골목길을 활용해 목포의 생활상과 이야기가 담겨있는 골목길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자원에 역사자원을 가미한 탐방로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자드락은 나지막한 산기슭의 비탈진 땅을 의미한다.

마인게터 거리, 콩나물 골목, 해방촌, 남행열차 포차 거리 등으로 짜여진 이 코스는 체류형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공간이 조성된다.

마인게터 거리에는 만인의 얼굴을 담은 이벤트 벽면공간이 조성되고 희망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제작 설치된다. 콩나물 골목에는 '오선지 위에 목포가 있고 콩나물 통내가 있고 노래가 있다'는 컨셉 아래 콩나물을 재배하는 체험장과 판매장 등이 들어선다.

해방촌 골목에는 영화 '클래식'을 소개하는 공간과 함께 주민공간 '주희의 집' 포토 존이 마련되고 '목포는 항구다'를 주제로 한 놀이 전망대도 설치된다. 또 남행열차 포차거리의 먹거리리를 위한 공간으로 남행열차를 테마로 한 포차마차 12대가 운영된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총 93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목포의 재발견' 프로젝트는 주택 개량사업과 경관사업이 골자다. 총 12억원이 투입되는 주택 개량사업은 유달산 비탈면에 위치한 노후불량주택 120호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또 경관 관리는 항구도시 목포를 상징하기 위해 푸른바다를 연상하는 색상(파란색 등) 고유의 색채를 선정해 목원동 일대 오래된 가옥 100호의 지붕을 도색,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해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단은 지난달부터 주민참여형 마을기업을 육성해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박종홍 목포시장은 "유명국가나 세계 손꼽히는 도시를 가보면 그 지역을 상징하는 이미지와 함께 독특한 도시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목포 원도심의 예술 입히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목포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문화 관광도시로 부활할 수 있도록 문화·역사·관광을 테마로 한 오감체험형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최근 들어 목포 원도심 골목길 투어에 나서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목포시는 이들을 위해 골목길 해설사 20명을 양성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위부터 목포 청년회관, 노라노 미술관, DJ 신혼집. /목포=임영춘기자 lyc@

임성지구 도시개발 5년만에 본격화

목포시, 15일 사업제안서 평가

목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임성지구(석현동 197만9000㎡) 도시개발 사업이 5년 만에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조만간 민간사업자도 선정될 예정이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는 10일 "임성지구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5일 도시개발 사업단 회의실에서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 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목포시 도시계획·설계자문·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비롯한 목포권 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목포시의원, 주민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사업 제안서 평가는 ▲사업계획서 3개 항목 350점 ▲운영계획서 2개 항목 200점 ▲가산점 100점 등 총 650

점을 배점으로 이뤄지며, 목포시는 45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형석 목포시 도시개발과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8월까지 목포시의회 동의회 협상을 거쳐 오는 9월 정식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올 연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시차원에서 진행시킨다면 내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와 환지설계,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PC 설립자본금은 공공(목포시)부분과 민간자본간 51대49의 비율로 출자하게 되며, 추정 총사업비 2335억원은 전액 민간사업자가 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목포시는 사업비에 대한 예산부담이 없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실내 육상 트레이닝장 내달 착공·연말 완공

목포시가 육상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동·하계 전지훈련 유지를 위해 '실내 육상(웨이트) 트레이닝장' 건립에 나선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유달경기장 내 육상보조 트랙에 건립되는 실내 육상 트레이닝장은 연면적 600㎡에 길이 40m 폭 15m 규모다.

목포시는 이달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한 뒤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가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산 소요 사업비는 총 6억원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과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추진된다.

김종진 목포시 스포츠산업과장은 "훈련 장비 등 내부시설 기능보강은 추후 도비 등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웨이트 트레이닝장이 완공되면 육상 팀의 동·하계 전지훈련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목포시는 유달경기장 내·외벽에 대한 콘크리트 보수공사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유달경기장 내·외벽은 노후화로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탈락이 심해져 미관 저해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한편 목포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하계전지훈련 유지기간으로 정하고, 14개 종목 80개 팀 5만여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스포츠산업과는 시체육회, 경기단체, 학교·직장운동부 등과 연계한 유지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종목(지역)별 지도자 초청 팸 투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하계전지훈련 기간에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해 국내·외 팀 전지훈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하반기 정거인사...승진 29명·전보 31명

목포시는 지난 8일 승진 29명, 전보 31명에 대한 하반기 정거인사를 단행했다.

목포시는 10일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등에 따라 행정·보건·환경 직렬 8명을 5급 승진 교육대상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보인사는 제328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목포 항구축제 일정을 고려해 최소 규모로 이뤄졌으며, 5급 이상 전보 및 6급 이하 순환전보는 오는 9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균형있는 조직 운

영과 복지수요의 급증에 대비해 소수 직렬 배려와 함께 여성공직자를 발탁했다"며 "승진서열을 기준으로 업무능력, 관리자의 자질, 경력,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인사"라고 밝혔다.

한편 5급 승진 교육대상자는 ▲경리담당 정병철 ▲행정정보담당 오형순 ▲지역경제담당 박홍관 ▲도시행정담당 백성숙 ▲북항동장 직무대리 이호성 ▲징수 1담당 김광수 ▲식품위생담당 박주신 ▲폐기물담당 염승주 등 8명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202억원 투입 목원동 도시재생 사업 박차
마인게터·DJ신혼집·구름다리길 등 연계
명품 관광루트 만들고 자드락 골목길 조성
목포 상징 지붕 색칠해 새 볼거리 제공도



목포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대상지(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내에 관광루트 테마거리와 사랑의 하늘길, 추억의 땅길이 조성된다.

의 실존 인물인 육단어를 모티브로 삼았다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육단어는 1930년대 초반부터 해방에 이르는 기간 동안 목포의 4대 명물(역전의 멜라콩, 평화극장 외팔이, 대성동 쥐약장수) 가운데 한 명으로 등장수로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육단이 길은 마인게터, DJ 신혼집, 콩나물 동네, 차범석 생가, 박화성 생가터, 남진 생가, 양동교회, 북교동 성당(김우진), 불종대터 등 15개 주요 거점을 순환하는 코스로 총 연장은 4.6km다. 이 코스를 둘러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또 목마르뜨 거리, 구름다리길, 김우진 거리 등 '유달산으로 가는 길' 3개 코스도 포함돼 있다. 목마르뜨 거리는 노적봉으로, 김우진 거리는 조각공원, 구름다리 길은 달성사로 가는 길목이다. 목마르뜨 거리에는 고은과 범정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포토 존과 벽화가 설치되고 육단이 전방 데크, 남농 하건 테마 존, 비움과 나눔 센터, 아트마켓 등이 조성된다.

구름다리 길은 목포만의 색(Color)을 테마로 한 거

광주 GWANGJU HEARING AID CENTE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문의 062 511-1141

사행 |주|에이저런 |사|광|신|총|합|건|설